

LG화학, GM 선정 최고기업상 수상

LG화학은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력과 품질로 GM의 세계 글로벌 공급기업 2만여사 가운데 최고기업으로 선정됐다.

LG화학은 3월11일 GM이 미국 디트로이트 르네상스센터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2010 Supplier of the Year> 행사에 김반석 부회장이 참석해 GM 덴 애커슨 회장으로부터 최고의 1사에만 수여하는 Corporation of the Year(최고기업상)을 수상했다고 3월13일 발표했다.

LG화학은 GM의 첫 전기자동차(EV)이자 최대 야심작인 쉐보레 볼트의 성공적인 개발과 양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고기업상을 받았다.

김반석 부회장은 “LG화학의 리튬이온전지가 기술력과 품질은 물론 공급능력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며 “앞으로 GM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양사가 세계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M은 매년 세계 2만여개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품질, 가격, 서비스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기업을 선정하며 가장 뛰어난 1사에 최고기업상을 수여하고 있다.

2010년에는 글로벌 공급기업 82사가 <2010년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1/03/14>